

# Confucian Academies and Cultural Contents - Modern Utilization Plan

## 서원과 문화콘텐츠 : 한국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

Mee Young Bang<sup>1</sup>

방미영<sup>1</sup>

<sup>1</sup> Professor, Dep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 Contents, University of Seokyeong, Korea,  
[mybang419@naver.com](mailto:mybang419@naver.com)

**Abstract:** UNESCO published 'Thematic Indicators for Culture in the 2030 Agenda' in 2019. UNESCO's cultural indicators are a framework of thematic indicators that aim to 'measure and monitor progress in the contribution of cultural revitalization to national and regional realiz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s 2030 cultural indicators are in context with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169 detailed goals set by the United Nations that no one is left behind. In order to achieve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set by the UN, the role of culture is important, but the fact that there is no indicator for cultural contribution is also the reason why UNESCO developed cultural indicators. Confucian academies in Korea also need to seek development plans based on the cultural indicators set by the UN. A modern utilization plan for Seowon in Korea is proposed. Establish CI and BI of 9 Seowon integrated brands; develop tourism products through integrated brands; develop experiential contents for cultural tourism effects; Seven suggestions were made: expansion of regionally linked tourism programs; publicity and culture marketing through youth collective intelligence, sixth, production of Seowon textbooks for cultivating next-generation researchers, and seventh, establishment of an operating system composed of world heritage-related experts.

**Keywords:** Heritage, Hyanggyo, Seowon, Cultural Heritage, Cultural Contents, Tourism Contents

**요약:** 유네스코(UNESCO)는 2019년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Thematic Indicators for Culture in the 2030 Agenda)를 발표하였다. 유네스코의 문화지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 및 지역 구현에 대한 문화 활성화 기여의 진전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제 지표의 틀이다. 유네스코의 2030 문화지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유엔이 정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169개 세부 목표와 맥락이 닿아 있다. 유엔이 정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면서도 문화 기여에 대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유네스코가 문화지표를 개발하게 된 연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서원 또한 유엔이 정한 문화지표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한국의 서원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첫째, 9개 서원 통합브랜드 CI, BI 구축; 둘째, 통합 브랜드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셋째, 문화관광 효과를 위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 넷째, 지역연계 관광프로그램 확대; 다섯째, 청년집단지성을 통한 홍보 및 걸쳐마케팅; 여섯째, 후속세대 연구자 배양을 위한 서원교지 제작; 일곱째,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체계를 구

Received: May 09, 2023; 1<sup>st</sup> Review Result: June 12, 2023; 2<sup>nd</sup> Review Result: July 16, 2023  
Accepted: August 25, 2023

축 등 일곱 가지를 제안한다.

**핵심어:** 세계유산, 향교, 서원, 문화유산, 문화콘텐츠, 관광체험 콘텐츠

## 1. 서원과 유네스코 문화지표

유네스코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는 4가지 영역과 22개의 세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환경과 회복력 영역은 1. 유산에 대한 지출, 2. 지속 가능한 유산관리, 3. 기후 적응과 회복력, 4. 문화시설, 5. 열린 문화공간; 둘째, 번영과 생활 영역은 6. GDP 내 문화 비중, 7. 문화 고용, 8. 문화 사업체, 9. 가계 지출, 10. 문화상품 및 서비스 무역, 11. 문화를 위한 공공 재정, 12. 문화 거버넌스; 셋째, 지식과 기술 영역은 13. 지속가능발전 교육, 14. 문화 지식, 15. 다중언어교육, 16. 문화예술교육, 17. 문화 훈련; 넷째, 포용과 참여 영역은 18. 사회적 결속을 위한 문화, 19. 예술적 자유, 20. 문화에 대한 접근성, 21. 문화 참여, 22. 참여적 과정이다[1].

유네스코 문화지표의 4가지 영역 중 첫 번째 환경과 회복력 지표는 장소에 대한 문화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는 지표로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가운데 지구(Planet)와 관련된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한편 문화적으로 민감한 계획'(culturally sensitive planning)을 세울 때 유산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전통 지식의 포용을 고려해야 하는 증거를 제공한다.

두 번째 번영과 생활 지표는 문화상품, 서비스 및 사업을 통해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고 수입을 증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로,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가운데 일자리 및 기업 창출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유산 보존 분야, 유산 관광 및 창의 부문이 국가 및 지역의 경제 발전과 생활 향상에 있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문화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세 번째 영역인 지식과 기술은 교육 훈련 및 관련 과정, 정책, 자료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지식, 기술을 전달하고 역량 강화를 평가하는 지표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가운데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적 지식의 통합 및 활용, 지속가능발전 및 문화적 가치의 전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네 번째 영역인 포용과 참여는 사회적 응집력을 구축하는 데 문화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가운데 문화관행, 유적지, 문화 요소 및 문화적 표현 등이 사회적 포용에 기여하는 가치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유네스코(UNESCO)는 2019년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의 연계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지표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네스코(UNESCO)에서 발표한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를 통해 <한국의 서원>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유네스코의 문화지표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살펴보고, 서원 기능의 재해석을 통한 현대적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서원 기능의 재해석

조선시대 성리학에 뿌리를 둔 서원은 1543년 주세붕(周世鵬)의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건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550년 이황(李滉)이 백운동서원을 사액서원으로 요청하면서 서원 보급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향촌 활동의 기반이 되는 교육과 문화를 이끄는 구심점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871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서원 철폐령이 내려지면서 전국 47개의 서원을 제외한 수백 개의 서원이 철폐되었다. 이로 인해 향촌의 정신문화를 이끌던 서원의 가치와 역할이 현대사회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구시대의 유산으로 매몰되었다.

### 1) 한국 서원의 유네스코 선정

2019년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는 현대사회에서 한국의 서원에 대한 가치와 기능을 재인식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소수서원(경북 영주), 남계서원(경남 함양),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필암서원(전남 장성), 도동서원(대구 달성), 병산서원(경북 안동), 무성서원(전북 정읍), 돈암서원(충남 논산)으로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연속유산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이 중국의 성리학에서 출발하였지만, 서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고서적과 고문서 등은 한국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어 온 지적 활동의 증거요, 제향 물품과 제향 의례는 한국 전통문화를 명맥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만의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문화적 전통에 대한 탁월한 증거를 선정의 이유로 꼽았다.

진성수는 조선조 서원의 기능을 5가지로 꼽았다[2]. 첫째, 지방의 교육기관으로 퇴계·율곡에 의해 지방 강학소 역할 수행 강화로 교육 활동 기반 정립의 기능, 둘째, 지역문화센터로 지역의 유교 지식인 집결지로서 상소를 통해 사림의 주장을 정리한 공론의 장소 기능, 셋째, 선현 제향 장소로 문묘제례 등 제향 인물에 대한 정기적인 의례의 장소 및 의례에 참여하는 지역 사람들의 수련 장소의 기능, 넷째, 도덕 질서유지로 지역사회에 대한 지적·도덕적 통합의 장소로 지역사회를 도덕적 공동체로 만드는 기능, 다섯째, 자료 보관·출판으로 유교 경전 및 지역 인사들의 문집류, 고문서자료 보존 제향 인물 중 유교집이나 문집 등의 출판 및 배포의 기능이다. 진성수가 주장한 조선조 서원의 5가지 기능은 유네스코가 한국의 서원을 보편적 탁월한 가치로 인정한 기능이다.

### 2) 한국 서원 기능의 재해석

현대사회에서 유교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한국의 서원이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제향의 전통 의례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최영갑 회장은 의례의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교문화의 현대화를 선언하였다. 유교문화의 현대화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에 맞는 시대적 발상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김정이는 유교문화에 대한 부정적 원인으로 권위주의적 활용방식과 유교문화 자원의 박제화, 박물관화 및 유교문화 자원운영 및 관리 주체의 고령화, 자자체의 적극적인 관심 부족을 꼽았다. 또한, 서원 활용 방안과 프로그램이 대중적 만족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활용 시설 확보, 인적 자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을 꼽았다[3].

서원 기능의 재해석은 유교문화의 부정적 원인 제거를 위해 유네스코가 발표한 2030 문화지표의 논리적 근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1]의 유네스코 2030 문화지표의 논리적 근거는 첫째, 문화의 가시화, 둘째, 주제별 개요 제공, 셋째, 메시지 및 옹호 활동 구축, 넷째, 국가 및 주요 정책이나 조치에 미치는 영향, 다섯째, 동향 파악 및 지식 구축, 여섯째, SDGs에서 문화의 글로벌 진행 상황 모니터링이다.



[그림 1] 유네스코 2030 문화지표 논리적 근거

[Fig. 1] UNESCO 2030 Cultural Indicators Rationale

이와 함께 유네스코 2030 문화지표의 이행을 위해서는 “ 1. 기존의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한다. 2. 질적 및 양적 데이터를 이용해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3. 유네스코 문화협약과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 데이터를 통합한다. 4. 국가 및 도시 수준에서 문화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다. 5. 관련 기관의 역량 구축을 우선시한다. 6.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한다. 7. 다양한 통계 역량에 적합한 틀을 제안한다. 8. 규범적인 평가보다는 모두를 위한 ‘열망을 담은 도구’를 제공한다. 9. 성과중심 관리의 개념적 틀을 반영한다.” 라는 준거를 구축해야 한다.

### 3. 서원의 현대적 활용 방안

####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한국의 서원’에 대한 현대적 활용 방안은 서원의 보편적 가치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유네스코가 2030 문화지표를 발표함에 따라 환경과 회복력, 번영과 생활, 지식과 기술, 포용과 참여의 4개의 영역을 통한 활용 방안으로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표 1]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2022년 4월 11일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2022~2026)’을 고지하였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2022~2026)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한다.’는 비전과 함께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미래세대 계승, 세계유산의 포괄적, 체계적 관리 역량 강화, 세계유산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활용 및 문화자원화, 세계유산 국제적 역할 강화 및 국제 협력에 기여’라는 정책 목표로 되어 있다[4].

[표 1]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2022-2026)

[Table 1] Comprehensive Plan for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2022-2026)

비전	세계유산의 OUV를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하다			
정책 목표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미래세대 계승 ·세계유산의 포괄적·체계적 관리역량 강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활용 및 문화자원화 ·세계유산 국제적 역할 강화 및 국제협력에 기여			
추진 전략	지속가능한 보존 체계 마련	포괄적·체계적 관리역량 강화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활용 및 문화자원화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 강화
핵심 과제	①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지원 ②세계유산지구 지정 ③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④국내법제 정비 및 국제규범 방향 제시	①상시적 관리체계 마련 ②세계유산 정보체계 구축 ③세계유산 국내 네트워크 강화 ④연속유산의 통합적·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⑤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①세계유산 인식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②세계유산 향유 기회 확대 ③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기반마련	①남북간 교류·협력 증진 ②세계유산 분야 국제사회 역할 확대 ③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④세계유산 국제기구 지원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2022~2026)’을 고지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과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은 2022년 8월 ‘2023~2027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에 대한 기본 틀을 논의하였다. ‘2023~2027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한국의 서원>이 지닌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호, 증진,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이다. <한국의 서원>이 14개의 지방자치단체(6개 광역, 8개 기초)에 걸쳐 소재하고 있어 통합 관리 및 활용 계획의 수립은 세계유산목록 등재 시 연속유산에 대한 통합관리에 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5][6].

‘2023~2027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은 세계유산의 국내외적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5년 주기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관광개발계획,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세계유산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2023~2027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은 [표 2]와 같이 5가지 세부 전략과제가 수립되었다[7].

[표 2] 2023~2027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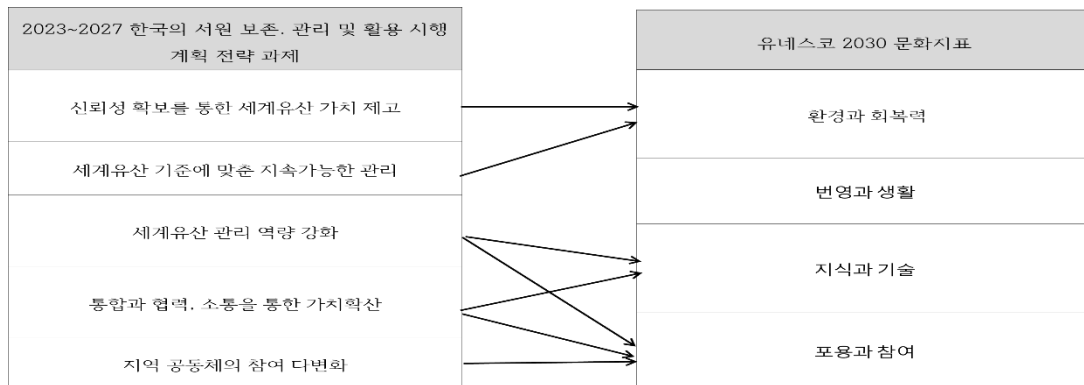
[Table 2] 2023-2027 Preservation of Seowon in Korea. Management and Utilization Implementation Plan

전략과제	세부 과제
신뢰성 확보를 통한 세계유산 가치 제고	- 서원 가치의 진정성 및 완전성 증진 - 서원의 기초자료 심화연구 - 서원의 유무형 문화유산 등록/지정

세계유산 기준에 맞춘 지속가능한 관리	- 서원 관리의 고도화 - 서원 보호를 위한 세계유산 유산영향평가 정착 기반 마련
세계유산 관리 역량 강화	- 서원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 서원 관리자 및 관계자 전문성 강화 - 서원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
통합과 협력, 소통을 통한 가치확산	- 연속유산의 홍보와 대국민 소통 강화 - 서원의 가치 활용을 통한 OUV 확산 - 서원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
지역 공동체의 참여 다변화	- 서원 별 지역공동체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구축 - 서원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2) 현대적 활용 방안을 위한 문화콘텐츠 전략

‘2023~2027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은 [그림 2]와 같이 유네스코 2030 문화지표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보면 유네스코 2030 문화지표의 두 번째 영역인 번영과 생활 지표에 대한 시행 계획이 미흡하다. 유네스코의 번영과 생활 문화지표는 GDP 내 문화 비중, 문화 고용, 문화 사업체, 가계 지출, 문화상품 및 서비스 무역, 문화를 위한 공공 재정, 문화거버넌스를 통한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고 수입을 증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이다.



[그림 2] 2023~2027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전략과제와 유네스코 2030 문화지표와의 상관 관계

[Fig. 2] Correlation between Management and Utilization Action Plan Strategic Tasks and UNESCO 2030 Cultural Indicators

2023~2027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과 유네스코 2030 문화지표와의 상관관계에서 미흡하게 나타난 제2영역인 번영과 생활 영역에 대한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제2영역인 번영과 생활 영역의 문화상품 및 서비스 무역 지표를 위한 실행 계획은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 개발로 ‘전통문화 한글 교재 만들기’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 KF 통계에 따르면, 해외대학 중 한국어(학) 강좌를 운영하는 나라는 105개국, 1,368개 대학으로 한국어(학)을 전공강좌로 개설해 정식으로 가르치고 있어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전통문화 한글 교재가 필요하다.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그 나라의 글과 말을 배우는 것으로 한글의 파급 잠재력을

통해 기록문화유산인 서원의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3~2027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과 유네스코 2030 문화지표와의 상관관계에서 미흡하게 나타난 제2영역인 번영과 생활 영역에 대한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제2영역인 번영과 생활 영역의 문화상품 및 서비스 무역 지표를 위한 실행 계획은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 개발로 전통문화 한글 교재 만들기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 KF 통계에 따르면, 해외대학 중 한국어(학)강좌를 운영하는 나라는 105개국, 1,368개 대학으로 한국어(학)을 전공강좌로 개설해 정식으로 가르치고 있어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전통문화 한글 교재가 필요하다(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배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그 나라의 글과 말을 배우는 것으로 한글의 파급 잠재력을 통해 기록문화유산인 서원의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글의 바른 사용을 위해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글 교재를 수준별로 개발하여 전 세계 세종학당 84개국 244개소([2022년 6월 기준]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 한글 교재 만들기를 서원문화스태이 프로그램으로 구축하여 콘텐츠로 확장하고, 서원의 배양인물 중심의 스토리를 한글 교재의 소재로 스토리텔링 하여 OSMU( One Source Multi Use)로 확장하는 단초 마련한다. 또한 전통문화 한글 교재는 전자책으로 디지털화 하여 MZ세대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 한글 교재 만들기 추진 계획은 [표 3]과 같다. 전통문화 한글교재 만들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한글의 디자인적 요소를 활용해 자모음이 프린팅 된 의류가 유행하는 한편, 할리우드 스타들도 한글에 관심을 갖고 개인 SNS에 포스팅하는 등 한글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바, 서원을 소재로 하여 전통문화 한글 교재를 다양하게 구성, 서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홍보하는 데 있다.

[표 3] 전통문화 한글 교재 만들기 추진 계획

[Table 3] Traditional Culture Hangeul Textbook Promotion Plan

2022년(1차 년도)	2023년(2차 년도)	2024년(3차 년도)	2025년(4차 년도)	2026년(5차 년도)
전통문화 한글 교재 제작위원회 구성	전통문화 한글 교재 개발 방향 및 예산 수립	전통문화 한글 교재 분야별 개발 동시 시행	전통문화 한글 교재 출간	전통문화 한글 교재 보급 (세종학당, 한글학당 등)

이와 함께 ‘서원문화순례길(가칭)’을 명명하여 유네스코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에 대한 가치를 경험하게 하여, ‘선비정신’(仁義禮智)이 시대를 초월한 이상적 인간상임을 인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서원문화순례길(가칭)’은 9개 서원의 대표 스토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9개 서원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연계한 인문학 탐방 코스를 구축하고 9개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브랜드(CI, BI) 구축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서원문화순례길 인근지역의 숙박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여행자의 편익을 제공하여 유네스코 2030문화지표 제2영역인 번영과 생활의 세부 지표인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서원문화순례길(가칭)’은 산티아고순례길처럼 인문학 관광으로 각광 받을 수 있다. MZ세대들에게 선비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하여,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통해 미래지향적 생산물을 창출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원문화순례길(가칭)을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부각시키기 위한 연계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 유네스코 2030 문화지표 제2영역인 번영과 생활의 지표를 실행할 수 있다.

[표 4] ‘서원문화순례길(가칭)’추진 계획

[Table 4] ‘Seowon Cultural Pilgrimage Road (tentative name)’Promotion Plan

2022년(1차 년도)	2023년(2차 년도)	2024년(3차 년도)	2025년(4차 년도)	2026년(5차 년도)
서원문화순례길 코스 명명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 (보존단, 9개 서원 관계자, 전문가, 관련 주무부처)	서원문화순례길 구간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및 관할 행정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 통합브랜드(CI, BI) 구축, 표식판 설치, 한국관광공사, 국내외 여행사와 여행프로그램 구축	서원문화순례길 걸쳐마케팅 계속추진	서원문화순례길 걸쳐마케팅 계속추진	서원문화순례길 걸쳐마케팅 계속추진

#### 4. 결론: 시사점 제언

##### 4.1 한국서원 현대적 활용방안 제언

한국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을 위해 필자는 일곱 가지 활용 방안을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 제언하였다.

첫째, 9개 서원 통합브랜드 CI, BI 구축:

○ 문화관광은 교류와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는 9개 서원의 통합브랜드를 구축하여 문화관광의 기능인 상호적 기능, 사회적 기능, 홍보적 기능을 확보해야 함

1) <한국의 서원>의 통합브랜드를 위한 CI, BI 구축

2) CI를 바탕으로 안내 표지판 설치(예: 산티에고 순례길 표식)

- 관광객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표지판을 따라 서원을 찾아오게 함

- 표지판을 배경으로 한 사진은 SNS를 통해 걸쳐마케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그림 3]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표지판[8]

[Fig. 3] Sign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Case of Armed Conflict





[그림 4] 관광객을 위한 지역방문 표지판

[Fig. 4] Local Signage for Tourists

둘째, 통합브랜드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 통합 브랜드 CI와 BI를 활용한 기념품 개발

1) 통합브랜드의 로고가 찍힌 기념품 판매로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서원>이 오래도록 기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서원의 재정적 측면에서도 보완될 수 있음

- 열쇠고리(갓, 벼루, 붓, 부채, 서책, 9개 서원을 상징하는 건축물 축소형), 다기, 손수건 등등 <한국의 서원>과 연계된 아이템 선정

- 통합브랜드를 통한 관광상품은 <한국의 서원>이 위치한 지역의 관광상품판매소와 추후 개설될 한국의 서원 통합홍보관에도 배치하여 <한국의 서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은 <한국의 서원>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알리게 하며 추후 온라인 판매로 해외로도 유통 가능함

셋째, 문화관광 효과를 위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

○ 문화관광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의 자긍심을 통해 전통적 유산의 코드를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재구성하게 함. 따라서 창조적 상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체험 콘텐츠로 사유(思惟)하게 해야 함

1) 문화관광의 체험콘텐츠는 Pine과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을 기반으로 한 체험요소를 구축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

- Pine과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을 기반으로 문화관광의 체험요소는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 일탈적 체험의 4요소로 분류됨. 따라서 각 체험요소별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특히 전통놀이, 전통음악, 전통음식 등을 체험 요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넷째, 지역연계 관광프로그램 확대:

○ 9개 서원이 배양한 인물의 스토리를 따라서 지역연계 투어 코스 개발로 <한국의 서원>이 현대사회에까지 이어지는 문화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야함

1)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향교·서원 문화관광활성화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투어 코스로 운영 중에 있음.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서원>이 지역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 정례코스 개발이 필요함

- 외국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서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투어는 꼭 가봐야 할 한국의 여행 코스로 인식됨

- 지역민들에게도 지역과 연계한 투어를 통해 <한국의 서원>의 현대에도 중요한 지역 자원임을 일깨우게 해야 하여 서원이 닫힌 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함.

2) 9개 서원의 연계 관광코스를 <유유자적 선비길(가칭)> 구축하고, 모든 코스마다 미션을 부여하여 9개 서원을 탐방한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선비(가칭)>라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한국의 선비(가칭)>에게는 9개 한국의 서원이 있는 지역 관광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 등의 혜택을 부여함

- <유유자적 선비길(가칭)>은 제주 올레길, 스페인 산티에고 순례길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코스별 스토리의 특별함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힐링과 쉼을 제공할 수 있음

다섯째, 청년집단지성을 통한 홍보 및 걸쳐마케팅:

○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 청년들이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1) 서원지킴이(서포터즈) 활동이 단기적이고 의무적인 활동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속적인 활동이 되도록 지원되어야 함

-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이 펼치는 [문화어활], [문화농활]은 도시청년들이 농촌의 소멸지역과 낙후된 섬을 찾아 콘텐츠를 개발하고 컨설팅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이끌어내고 있음. 이와 같이 <한국의 서원>도 콘텐츠를 직접 청년층이 개발하고 컨설팅 함으로써 MZ세대들의 관심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음

2) 홍보는 영상을 중심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텍스트 홍보물 또한 전자책으로 디지털화해야 함

- 뉴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개인 단말기를 통해 모든 정보를 습득하는 시대인 만큼 홍보물은 디지털로 제작되어야 함

여섯째, 후속세대 연구자 배양을 위한 서원교지 제작:

○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후속세대의 연구자가 계속 이어져야 함

1)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연구자 배출을 위해서는 서원교지가 연구자가 접근하기 쉬운 책자로 제작되어야 함

- 대부분의 교지가 양장본으로 두껍게 제작되어 있어 연구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함.

- 서원교지 제작은 기록보관을 위한 보관본과 대중들을 위한 보급용으로 나눠 제작할 필요가 있음.

- 보급용은 디지털 전자책으로 만들어 후속세대 연구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해야 함

- 보급용 서원교지 제작을 통해 <한국의 서원>이 MZ세대가 열광하는 웹툰, 웹소설, 영화, 드라마 등의 OSMU로 확대되어야 함

2) 후속세대 연구자들을 위해 <청년유생(가칭)>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의 서원>이 전통과 현대를 융복합하는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기획할 수 있게 해야 함

- 관광의 기본은 공간의 문화화, 사람의 문화화, 상품의 문화화로 또 오고 싶은 매력도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함. 따라서 <청년유생(가칭)>을 통해 <한국의 서원>을 문화관광적 접근으로 포지셔닝해야 함

- Z세대와 이후세대인 알파세대는 유튜브, 넷플릭스, 메타버스가 놀이터이며 콘텐츠로 지역의 청소년 및 청년단체들과의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아가 전국 단위의 청년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국 청년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유생의 날(가칭)>로 전통놀이, 전통음악, 전통음식과 연계한 축제와 포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기타:

- 각 분야의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단위의 <한국의 서원>의 관광체험 콘텐츠 등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상시자문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의 산재한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통해 <한국의 서원>이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여 인성교육의 메카로 추앙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주민 대상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지역주민들 스스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주민이 <한국의 서원>의 위치와 세계유산이 된 가치가 무엇인지, 무슨 행사를 하는지, 배향인물이 누구인지 등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 할 경우 <한국의 서원>의 브랜드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위와 같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서원>은 현대사회에도 정신문화의 전통성을 이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을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23~2027 한국의 서원 보존. 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의 추진 과정을 통해 유네스코의 2030 문화지표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후속 연구과제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4.2 결론

지금까지 한국 서원이 조선시대 성리학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향촌 지식인들의 학습 정진을 위한 교육과 배향인물의 제향을 통한 정신문화의 교류에 중심이었다면, <한국의 서원>으로 새롭게 브랜딩 된 현대의 서원은 성리학 중심의 유교문화의 한계에서 벗어나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과 활용 방안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올해 진행되는 청소년선비단의 향후 활동이 기대된다.

## 5.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3년 서경대학교 내 연구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22년 한중 서원·유교 문화 컨퍼런스에 발표한 내용을 재 구성 및 정립되었음.

## References

- [1] <https://whc.unesco.org/en/culture2030indicators>, May 09 (2022)
- [2] Chin Sung Su, Jeonbuk Region's Seowon Management and Modern Adaptation Methods,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2016), Vol.70, pp.263-294.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A102652616>
- [3] Kim Jung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onfucian Modernization Program Using Hyanggyo Confucian Academ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cademic conference, (2013)  
Available from: <https://memory.library.kr/files/original/251d9404dddea8bfd0d587c8b674c3e4.pdf>
- [4] [https://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id=19907&no=26567&bbzId=newpublic&mn=NS\\_01\\_01](https://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id=19907&no=26567&bbzId=newpublic&mn=NS_01_01), Feb 3 (2023)

- [5]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omprehensive Plan for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2022~2026, (2022)  
Available from: [https://www.cha.go.kr/gosi/selectGosiView.do;jsessionid=VfvRQJlyOaTpfANZe5oSZRg5aqT0ndzD01X8IzEzajn6m6zr7yJxV2jt1QnoOAC5.cha-was01\\_servlet\\_engine1?id=1419&pageIndex=3&schWhere=&schDirect=&strWhere=&strValue=&flag=&sdate=&edate=&ctcd=&kdcd=&asno=&mmn1=&mn=NS\\_03\\_01\\_05](https://www.cha.go.kr/gosi/selectGosiView.do;jsessionid=VfvRQJlyOaTpfANZe5oSZRg5aqT0ndzD01X8IzEzajn6m6zr7yJxV2jt1QnoOAC5.cha-was01_servlet_engine1?id=1419&pageIndex=3&schWhere=&schDirect=&strWhere=&strValue=&flag=&sdate=&edate=&ctcd=&kdcd=&asno=&mmn1=&mn=NS_03_01_05)
- [6] Bang MeeYoung, Conservation of Seowon in Korea. Management and Utilization Implementation Plan, Korean Seowon Integrated Management and Preservation Group, (2022)  
Available from: [https://opc.or.kr/skin/bbs\\_download.php?board\\_data=aWR4PTc5JnN0YXJ0UGFnZT0wJmXpc3RObz03MSZ0YWJsZT1yZWRFYmJzX2RhdGFfbm90aWNlJmNvZGU9bm90aWNlJnNlYXJjaF9pdGVtPSZzZWFiY2hfb3JkZXI9%7C%7C&search\\_items=Y29kZT1ub3RpY2UmXyZzZWFiY2hfaXRlbT0mXyZzZWFiY2hfb3JkZXI9Jl8mdW5zaW5nY29kZTE9MTUyNzczMzc1OCZfJnVuc2luZ2NvZGUyPTE1Mjc3MzM3ODEmXyZ1bnNpbmdjb2RlMz0mXyZjYXRlPSZfJnB3ZD0=%7C%7C&download=1&code=notice](https://opc.or.kr/skin/bbs_download.php?board_data=aWR4PTc5JnN0YXJ0UGFnZT0wJmXpc3RObz03MSZ0YWJsZT1yZWRFYmJzX2RhdGFfbm90aWNlJmNvZGU9bm90aWNlJnNlYXJjaF9pdGVtPSZzZWFiY2hfb3JkZXI9%7C%7C&search_items=Y29kZT1ub3RpY2UmXyZzZWFiY2hfaXRlbT0mXyZzZWFiY2hfb3JkZXI9Jl8mdW5zaW5nY29kZTE9MTUyNzczMzc1OCZfJnVuc2luZ2NvZGUyPTE1Mjc3MzM3ODEmXyZ1bnNpbmdjb2RlMz0mXyZjYXRlPSZfJnB3ZD0=%7C%7C&download=1&code=notice)
- [7] Korean Seowon Integrated Management and Preservation Group, 2023~2027 Conservation of Seowon in Korea, Management and Utilization Implementation Plan, (2022)  
Available from: [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89&BD\\_CODE=gosi\\_notice&cmd=2&B\\_NUM=319378701&B\\_STEP=319378700&](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89&BD_CODE=gosi_notice&cmd=2&B_NUM=319378701&B_STEP=319378700&)
- [8] Hague Convention of 1954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Jan 16 (2023)  
Available from: <https://www.unesco.org>